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였습니다. 기고한 내용을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베트남] 소매시장 급성장...한류 열풍도 긍정적

올 들어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적을 불문하고 서로 앞다퉈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분야로 유통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이 뜨겁게 부각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 내수 시장의 급성장에 대한 학습 효과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매시장 매출은 4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6%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베트남의 가구별 소비가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6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베트남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매시장의 성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AT커니는 베트남 소매시장 매출이 조만간 113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해 성공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진출할 시기를 놓쳐버린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제2의 중국으로 인식되고 있다...(중략)

정정태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베트남 법인장

- [제866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